

처음인 듯 처음 아닌 처음 같은 지진

체험수기부문(중고등부)

대상 송민수

나는 부산에 산다. 올해 6월 전국을 강타했던 지진을 기억하는가? 나는 그 날 일어났던 지진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기억난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나는 친구들과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처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나와 친구들은 지진인 줄 몰랐다. 왜냐하면 진동은 없고 '쿵'하는 소리만 들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학교 옆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건물의 자재가 떨어진 줄 알았다.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친구들이 자습시간에 들었던 소리에 대해서 추측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도중 또 울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꽤 컸었다. 하지만 당시에 복도에서 워낙 떠들고 노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못 들은 친구들도 있었고 들은 친구들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 자습 2교시가 한창이었을 때 쿵하는 소리와 강한 진동이 일어났었다. 창문도 흔들렸다. 그래서 그 때 다들 지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다. 다들 처음에는 진동과 소리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이윽고 몰래 핸드폰을 내지 않았던 친구들이 재난 경보알림 문자를 확인하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하며 진짜 지진이 일어난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되었다. 그 당시 우리들은 마냥 기뻐하기만 했다. 왜냐하면 지진 때문에 야간자율학습을 빨리 마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기 때문이다.

물론 다들 기뻐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당시 몇몇의 친구들은 지진에 대해서 가족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다들 사태의 심각성과 사태를 즐기던 행위를 모두 그만두고 순수하게 '지진'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처럼 말이다. 우리들이 지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이유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였다. 바로 살면서 이 정도로 크게 울린 지진을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다들 설마 건물이 무너질까 하며 그저 안일하게 앉아만 있었다.

이윽고 창문이 강하게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한 번 더 왔었다.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야간자율학습이 조기 종료되어 빨리 학교를 나갈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다들 기쁨에 심취해 있었다. 다들 복도로 나와 상황을 확인했고 선생님들은 그런 학생들을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빼셨다. 스피커가 치직거리며 익숙한 교감선생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전교생을 조기 귀가 처리한다는 말이었다. 말이 끝나자마자 친구들은 다들 가방을 매고 뛰쳐나갔었다. 지진에 대한 두려움은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집에 간다는 사실에 다들 흥분했었다. 물론 나 역시 그랬었다.

하지만 교문 앞을 지날 때 모두들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다. 하나 둘씩 가족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집에 전화를 거는 친구들도 있었고 콜택시를 불러 집에 빨리 가려던 친구도 있었다.

나는 봉고를 타고 집에 오는데 봉고 안의 분위기는 평소랑은 다르게 침울했다. 간간히 오가는 말들은 서로 가족에게 연락이 되는지와 앞으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까에 대한 걱정들이었다. 솔직히 그 누구도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해서 걱정에 떨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지진은 우리에게서 언제나 동떨어진 존재로 느껴졌었다. 언제나 옆 나라 일본에서 일어나는 것

이며 우리와는 상관없고 앞으로도 상관없을 예정인 존재로만 생각해왔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지진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해 왔었다. 언제나 우리주변을 배회해왔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지진 예방 교육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모두다 분명히 초등학교 때부터 지진에 대한 체험학습을 받은 적이 있고 예방 교육 또한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받아 왔다. 하지만 막상 지진이 일어났을 때 책상 밑으로 숨는다거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석을 쓴다든가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그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당황하였으며, 순간을 즐겼고 서로 눈치만 보았다.

사실 나도 그 때 눈치 보느라고 머릿속에 있는 예방법을 실천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나만 그러면 웃음거리가 될까 봐 두려웠다. 아마 다들 나와 같은 생각을 했을 지도 모른다. 설마라는 생각을 하며 그 곳에 있었을 것이다.

머리로는 지진의 대처법을 알고 있었지만 몸으로는 행동하지 못했다. 설마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칠까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크던 작던 분명한 위험이 있었고,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 대처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당장 웃음거리가 될까 봐 자신을 방치한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최근 뉴스에서 우리나라도 점점 지진권에 포함되어지고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나라도 지진권 한 가운데 들어선다는 말이다.

만약 그 때도 지금과 같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위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진에 대해서 천천히 경각심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루 바빠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진에 대처하는 모습이 이상한 시선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당연히 지진에 대처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당연시하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지진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처음인 듯 처음 아닌 처음 같은 지진을 우리 모두 직접 경험했다. 한 번은 다행히도 큰 사고 없이 넘어갔다. 하지만 두 번째에도 이러한 행운이 따를 것이라는 법은 없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들은 처음인 듯 처음 아닌 처음 같은 지진을 마주해야한다고 생각한다.